아름다운교회 수요 여성예배 설교 (2010/10/13)

본문: 요한복음 20:11-18,
제목: 대제사장 막달라 마리아

잃어버린 가방

여러분, 무언가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 베터리가 다 되서 LA 공항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통화가 다 끝난 뒤에 제 가방을 공중전화 박스 안에 놔둔 채로 그냥 집에까지 온 것입니다. 집에 올 때까지 가방을 놔두고 온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먼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크래딧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구요. 현금 800불. 어느 분이 선물로 준 2,000불짜리 애플 랩톱 컴퓨터가 들어 있었구요. IPOD, 일년 넘게 써온 제 일기장, 저와 두 딸아이의 미국 여권, 아내의 영주권, $1400불짜리 니콘 카메라, 핸드폰, 결혼 선물로 받은 500불짜리 몽블랑 만년필, 내가 십년 넘게 가장 아끼는 손때 묻은 성경책...

나에게 소중한 거의 모든 물건들이 들어있는 그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공항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항공사에 전화를 하고,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하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깊은 상실감의 기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제가 가방을 잃었을 때의 그런 상실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의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7명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막달라가 Last Name 이고 마리아가 First Name 인 줄 알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란 갈릴리 바다에서 북서쪽으로 4 Km 떨어진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제가 연극 감독이라면 요한복음의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지르고, 로마군인들은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대하고, 피와 땀이 튀기며, 요란하고, 시끄러운 그런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머리 속에 그 장면을 그림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이르면 갑자기 무대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용한 적막이 흐르는 가운데 한 여인의 슬피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때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여자입니다. 여자로서 죄인이었다는 것은 그녀가 몸을 파는 여자였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지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하여 주셨던 분이고, 자신을 괴롭히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다닙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앗아갔습니다. 자신의 눈 앞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호흡을 헐떡거리며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된채 죽어가는 것을 보며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상실감이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하면서 며칠 전에 그 상상을 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눠드린 삽지에 있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빈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독백

지난 밤, 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던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아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저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내가 죽은 줄 알았냐고 하시며 환히 웃으실 것만 같은데…
이제 모든 것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 분이 무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앗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나의 마음은 깊은 상실감으로 뒤덮여야만 하는 건지요?
내가 원한 것은 항상 잃어야만 하나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타인의 만짐은 내게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분의 손길만은 나에게 치유였습니다.
남자도, 소유도, 젊음도 내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 가운데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두가 나를 소유하려고만 했을 뿐, 어느 누구도 일곱이나 되는 귀신이 들렸던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분이 나를 바라볼 때, 그 눈동자는 마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라도 한듯 나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 분의 말씀을 듣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랑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마저 세상은 나에게서 앗아가야만 했던 걸까요?

아, 나의 마음은 불타는 화로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타는 그리움을. 그 그리움의 대상을 찾으면 난, 나의 그 무엇이라도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나를 부드러이 어루만지는 듯하더니 이내 날카로운 손톱이 되어 내 마음을 할퀴곤 하였습니다.
마치 불에 데인 듯, 상처입은 내 영혼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깊은 그리움의 참 대상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건만 세상은 그마저 앗아갔습니다.

그 분이 계신 곳이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죽음 너머에 계신 나의 주님께 나도 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죽음이 막다른 골목이 되어 내 앞에 장애물로 서 있습니다.
저 무덤이 벽이 아닌 입구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그저 그 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의 이름 부르시는 그 온유한 음성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그 분의 손과 발에 못 박았던 망치 소리만이 고문처럼 내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PAUSE)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지구 상에 그 어떤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 그러나 믿기 어려운 그 신비로운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성경은 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 한 때 일곱 귀신이 들렸기에 사람들이 정신상태를 의심하고 있는 여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여인을 성경은 거룩한 부활 사건의 가장 첫번째 증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책이었다면 결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 (요 20: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성막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구약의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성막(Tabernacle)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 율법을 세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은좌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시은좌는 기능적으로는 언약궤의 뚜껑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왕의 보좌인 셈이죠.
그 시은좌의 양쪽에 무엇이 있습니다. 스랍(Cherubim) 혹은 그룹이라 불리우는 두 천사의 형상이 두 날개로 시은좌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은좌의 빈 공간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은좌의 빈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쉐키나 글로리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갖혀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인간을 만나기로 택하신 곳은 아이러닉 하게도 빈공간(Empty Space)이었던 것이죠. 두 천사는 죄 많은 인간들이 그 거룩한 공간을 보지 못하도록 시은좌를 두 날개로 가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구약의 성막은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3:24에 나타난 말씀을 형상화 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들이 다시 동산에 들어갈까봐 지켜야했던 에덴의 동쪽 문,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 지성소 내부 구조는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동쪽문으로 쫓겨난 것처럼 지성소의 휘장문이 의도적으로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문을 둔 성막은 일년에 단 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방당한 에덴에 인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일년에 한번 열어놓으신 거지요.

여러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본 장면의 깊은 영적 의미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성소를 본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 문을, 천사 둘이 지키고 서 있었던 구약의 성막 휘장 안쪽을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판에 세긴 말씀이 아니라, 육신에 세긴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셨던 분을 담고 있던 세마포는 곱게 게어져 한쪽에 놓여있고, 성막의 금으로 만든 천사 형상이 아닌, 실제의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양옆 머리 편과 발 편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가장 비천하고, 죄 많은 여인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지금 가장 거룩하고, 신비로운 공간과 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성막 지성소 안 빈 공간(Empty Space)에서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빈 무덤(Empty Grave) 안에서 인류를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를 대표한 대제사장이 되어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들어가봅니다.
그리고 지성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빠져나와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곁에 서계십니다.
언약궤와 빈무덤의 차이는 언약궤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으로 거룩하였다면 빈 무덤은 그 안에 말씀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옆에 서 계시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이었는데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깊은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는 고정관념이 그녀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 온 것은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온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제 과거의 사건, 추억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썩어 부패하는 시신일 뿐이라는 깊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예상과는 달리 무덤 반대편에 서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등을 돌린채 빈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바라는 것은 고작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보게 되어 그 썩어질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의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 "여자여,"

이것은 얼마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할 때 어머니를 불렀던 바로 그 호칭입니다. 아주 친밀한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이유는 물론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게 된 상실감 때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있는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 계신 예수님이 아닌,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을 찾아 온 것입니다. 친밀했던 예수님과의 과거의 기억이 그리워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녀가 찾아야 할 대상은 죽은 송장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조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 15절은 흥미롭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얕은 의미에서는 오해였지만 깊은 의미에서 볼 때 제대로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 (요 19: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새로운 에덴동산의 동산지기로 거기 서 계셨던 것입니다.

첫번째 에덴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와 사망의 역사가 시작된 동산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빈무덤의 동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쓴 잔을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동산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에덴 동산의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동산은 죄로 인한 슬픔의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 흘리던 슬픔의 동산은 무덤의 동산이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동산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 "마리아야..."

마치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하듯이 눈물에 가려 앞을 보지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 "랍오니..."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시여, Master시여...

그 때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 표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은 그 벅찬 전율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이시건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닌 죽은 주님의 시신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체험한 부분적인 예수님, 내 수준에서 내가 이해한 그 좁고 작은 예수님의 체험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시신방부제를 들고 서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 본 순간 마리아의 상실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만지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조금 뒤면 도마에게 손바닥가 옆구리를 내미시며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단순히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지만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주님께서는 더 이상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친밀하게 만나 주시고, 이전과 다른 차원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시고, 주님에서 친구로,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내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내 안에 내제하시기에 더 이상 상실할 수 없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린 채, 우리는 혹시 빈 무덤 속을 허리 굽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Whom do you seek? "누구를 찾느냐?"
이것이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린지 3일째 되던 날,
잃어버렸던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녹음된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12번째 메시지에 생소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제 가방을 우연히 찾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시간 거리에 떨어진 곳까지 운전하여 잃은 줄로만 알았던 제 가방의 모든 내용물들을 고스란히 찾아 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상실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으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가장 Unlikely 한 여인에게 가장 거룩하고 신비로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그 분은 무덤 속이 아닌 우리 곁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정히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사모하여 그 분을 찾아 순례여행을 떠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등 돌려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저 앉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나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깊은 교제를 날마다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헛된 만족을 찾느라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지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